



김강우(박도원 역)

로봇이 해탈을?

영화 '인류멸망보고서' 크랭크인
김지운 감독 '천상의 피조물' 눈길

인간이 만들어낸 피조물 로봇이 해탈할 수 있을까? 과감하게 로봇의 해탈을 다룬 영화가 만들어지고 있다.

새로운 영역의 SF영화를 개척할 것으로 기대 받고 있는 유니버스 SF영화 '인류멸망보고서(가제)'의 '천상의 피조물(가제)'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절에서 일하는 로봇이 깨달음을 얻는다는 내용의 '천상의 피조물'은 박성환씨의 단편 소설 '레디메이드 보살'을 원작으로 하고 있다. 2004년 과학기술 창작물에 공모된 단편소설 부문 당선작 '레디메이드 보살'은 깨달은 로봇이 자신의 회로를 끊으며 열반(깨)에 들어가서 스님들의 혼란과 깨달음 인정에 대한 논란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천상의 피조물'에는 깨달음을 얻은 로봇과 감정이나 생각이 금지된 로봇을 전제로 수리하는 로봇 수리요원 박도원, 로봇을 지키기 위해 수리요원과 감정적 대립을 이루는 해주보살

등이 등장한다. 깨달은 로봇과 인간 사이에서 가치관의 혼란을 느끼는 박도원 역에는 김강우가, 로봇 제조사와 대립하는 의지 강한 여성 해주보살에는 김민선이 각각 캐스팅됐다.

소설 '레디메이드 보살'이 원작
깨달음 인정 논란 고스란히 담아
SF 유니버스, 2007년 개봉 예정

'조용한 가족' '장화 홍련' '달콤한 인생' 등 현실적 공간에 뿌리를 둔 판타지 영화의 대가 김지운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김지운 감독의 영화는 비현실적인 공간이 주는 '공간의 판타지' 연출이 뛰어나다는 평단의 평가를 얻고 있다.

그런 그가 연출을 맡았기에 멀지 않은 미래에



김민선(해주보살 역)

로봇과 인간이 함께 사는 지구의 모습을 그리기 위해 의상, 공간, 소품 모두가 미래 시대에 맞춰 제작된 '천상의 피조물'이 어떤 공간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관객들을 사로잡을지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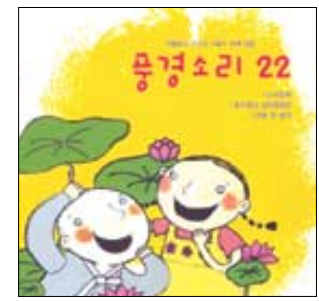
한국형 SF의 새 장르를 개척하고자 만들어진 '인류멸망보고서'는 세 편의 단편들을 모은 SF 유니버스 작품이다. 큰 미래 지구의 멸망 시점을 전후로 해 지구상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이야기를 모았다.

'인류멸망보고서'는 '천상의 피조물' 외에 좀비가 된 순수한 어떤 청년의 이야기를 다룬 임필성 감독의 '멋진 신세계', 오 헨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비틀어 지구멸망을 목도한 연인들의 무지컬을 담은 한재림 감독의 '크리스마스 선물' 등으로 구성된다.

편 당 15억원씩 총 50억원의 제작비를 투자할 '인류멸망보고서'는 2007년 초 개봉할 예정이다.

김지운 기자 jgyang@buddhanews.com

'풍경소리' 찬불동요 22집 발표



자연에서 부처님을 만난다. '자연에서 만나는 부처님'을 주제로 아름다운 숲 속의 하루를 노래한 풍경소리의 스물두 번째 찬불동요집이 나왔다.

요집이 나왔다.

신나는 여름불교학교를 겨냥한 이번 앨범은 산골짜기에서 들려오는 풍경소리, 목탁소리 등과 함께 흥겨운 소리잔치를 표현해냈다.

22집에는 '소리잔치' '웃으면서 살아갈래요' '연꽃 한 송이' '여름밤 이야기' '내 마음의 연꽃' '연꽃자리' 등의 노래들이 담겼다.

한편 풍경소리는 찬불가 듣기 코너와 자료실을 확대한 풍경소리 홈페이지(www.budsori.or.kr) 개편을 단행했다. 6월 한 달간 베타테스터로 오픈한 풍경소리 홈페이지는 기간동안 도움말씀이나 개편의견을 수렴해 개편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김지연 기자

생명영화 백배서원 음반 제작



"진리가 삶을 자유롭게 한다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첫 번째 절을 올립니다." "내가 밝힌 생명영화의 등불로 인해 온

누리의 뜻 생명들이 진정으로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발원하며 백 번째 절을 올립니다."

은 누리 생명영화들 기원하며 첫 번째 절에서부터 마지막 백 번째 절에 이르기까지 나와 이웃을 이해하고 외치는 '백배 서원문'을 글씨로 담아 생명영화결사가 CD를 만들었다. '은 숲'은 100번의 절이자, 생명의 근원인 모두의 호흡으로 간절한 평화의 염원을 담은 음반이기도 하다.

도법 스님, 김경일 스님, 노혜나 스님 등이 낭송하는 백배 서원문은 1배~32배, 33배~70배, 71배~100배의 세 곡으로 나눠 수록됐다. 이외에 새소리 들소리 등 자연의 소리와 음악이 어울린 산들바람, 풀 위의 기도, 풀잎의 이야기, 참회, 물위의 햇살 등의 배경음악이 '은 숲'에 담겨있다.

2006년 3월 탁발순례단의 첫 걸음과 함께 꼬박 3개월만에 생명영화 100배 서원음반 '은 숲'이 제작 완료된 것이다.

생명영화결사 최명진 문화위원(광주 미래에서 온 교회 목사)은 "음반을 들으면서 100배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34분 43초, 전라북도도를 걷고 있는 순례단은 하루에도 몇 번씩 생명영화 백배를 올린다"며 "25편의 생명영화 등불들은 서원문 낭송을 위해 단 길을 달려왔고, 해당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생명영화의 마음으로 기획, 작·편곡, 연주, 디자인을 위해서 정성껏 재능을 발탁했다"고 밝혔다. (063)636-1950 김지연 기자

중앙일간지

종교담당 기자들 '전문화'

중앙일보 이현외(55) 기자. 중앙일보 스포츠문화담당 부국장 겸 편집국 문화담당 부국장 등을 거친 이 기사는 지난해 10월부터 문화전문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동아일보 윤정국(49) 기자 역시 동아일보 오피니언팀장과 문화부장을 거친 후 지난해 5월부터 문화전문기자로 현장에 복귀했다.

최근 중앙·동아일보가 신설위원이나 보직부장을 지낸 '고참 기자'를 취재 일선으로 보내는 '신입기자제'를 도입함으로써 40~50대의 기자들이 현장으로 돌아가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종교 분야 출신 기자들이 예전보다 더욱 '전문화'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른 취재 분야와 달리 종교분야에는 유독 '전문기자'가 많다. 종교가 전문적인 지식과 안목을 필요로 하는 분야라는 방증이다. 한국지식재단은 2004년 6월부터 전문기자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있다.

1999년 11월부터 한겨레 종교면을 담당해 온 조연현(43) 기사는 지난해 10월 전문기자 심사를 통과해 '종교전문기자' 타이틀을 달았다.

한국경제신문의 서화동(43) 기사는 1991년 경향신문에 입사해 종교 담당을 자임한 이후 지금까지 종교분야 취재를 맡고 있으며, 서울신문 문화

부장 김성호(46) 기자도 종교전문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경향신문의 도재기(42) 기자와 문화일보 김종락(45) 기자 역시 종교

계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수년간 문화부에 몸담으며 종교분야를 담당했기 때문이다.

특히 조연현 기자와 서화동 기사는 종교담당 기자로 활동하며 쌓은 경험을 토대로 각각 <영혼의 순례자>(한겨레신문사), <산중에서 길을 물었더니>(은행나무) 등의 책을 펴내 대중적인 인기도 함께 누리고 있다. 여수영 기자 snopy@buddhanews.com

사회적 관심 반영, 현장 복귀도 지식 안목 경험 두루두루 겸비

재기성공, 우승 감격



볼타골퍼 박세리 선수(사진)가 2년간의 긴 슬럼프에서 벗어나 시즌 미국여자프로 골프(LPGA) 투어 두 번째 메이저인 맥도널드 LPGA 챔피언십 우승컵을 거머쥐었다.

6월 12일 미국 메릴랜드주 하브드그레이크의 볼타골프장(파72·6596 야드)에서 열린 맥도널드 LPGA 챔피언십 마지막 4라운드에서 3언더파 69타를 쳐 합계 8언더파 280타로 캐리 웨(호주)와 연장에 돌입한 뒤 첫 홀에서 극적인 버디로 우승컵을 품어 안았다.

지난 2004년 5월 미켈롭올트라오픈 우승 이후 슬럼프에 빠진 박세리는 이로써 2년 1개월 만에 통산 23번째 우승컵을 안으며 부활의 나래를 폈다. 우승 상금 27만 달러를 받아 삼구랭킹 12위가 된 박세리는 경기 후 "다시 우승하게 돼 매우 행복하다"면서 "지금 이 순간 나는 어느 누구보다도 기쁘다"고 우승 소감을 말했다.

김지연 기자

천축사, 1000여점 만다라 전시

전 세계에서 제작된 1000여점의 진품 만다라가 국내에서 선보이고 있다.

6월 18~24일까지 홍천 만다라보궁 천축사에서 열리는 '2006 홍천 해미만다라 산사 대축제'에서는 '칼라크라(영원한 시간의 수레바퀴)' 만다라를 비롯해 '21 관음의 눈동자(21 Magic Eye)' 등이 관객들의 시선을 모으고 있다.

홍천 천축사에 세워진 만다라보궁은 2년전 착공해 이번에 처음 문을 열었다. 이번에 공개되는 만다라는 서울 만다라문화원 원장 동휘 스님을 비롯해 인도 네팔 부탄 티베트 유럽 등 세계 10개국 스님들이 기도하면서 그려낸 만다라들이다.

전시회 첫날인 18일에는 만다라보궁 개관식과 함께 만다라 전통놀이, 청소년 우리쌀사랑 프로그램 등이 개최돼 호응을 얻었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동휘 스님은 "만다라 밀그림을 쌀로 선을 그으면서 시작하는데 쌀이 우주를 상징하고 그 우주를 중심으로 만다라 세상이 만들어진다"면서 "이번 행사를 통해 쌀과 우주, 인간, 만다라가 하나라는 것을 알리고 싶다"고 밝혔다. (02)432-0821 김지연 기자

수제화로 제작 **滿 行 靴** 상표등록: 614981호

■ 소재특징: 방수 극세사 원단, 논스립 미끄럼 방지, 특수 우레탄 소재

사계절 단화

자입식 깔창

마사 단화

● 가격: 80,000원
● 규격: 215-290mm
● 색상: 회색, 흑 (키높이 특수제작)

● 가격: 60,000원
● 규격: 215-290mm
● 색상: 회색, 흑 (키높이 특수제작)

가능성 지압 깔창

● 규격: 215-290mm (크기에 따라 조절가능)
● 가격: 20,000원

문의 및 주문전화: 02)927-5715 011-9000-5715

입금계좌: 농협 063-12-250427(구지민) ※ 비수입 분상당 환영

전국매장

부산: 원광사 051)636-7019 대구: 연꽃세상 053)426-7300
광주: 불교서원 062)226-6056 / 화신승복 062)228-2870
대전: 불교백화점 042)274-3727 서울: 부산승복 02)738-8407

생명체에 이로운 물질만 농축되어 있는

함 초

함초란? 바닷가 개펄이나 염전 등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풀이다. 함초는 개펄에 스며든 바닷물을 한껏 빨아들인 다음 광합성 작용으로 물기를 증발시키고 각종 미네랄 성분은 고스란히 저장하는 생리를 가지고 있어서 사람에게 아주 좋은 효능을 고루 얻게한다.

놀라운 함초의 효능

- ▶ 혈액순환이 좋아 저혈압, 고혈압, 중풍작용에 효과.
- ▶ 축농증, 신장염, 관절염 등 각종 염증에 효과.
- ▶ 비만치료에 좋은 효과 부인병에 효과.
- ▶ 위장기능에 좋아 변비치료에 효과.
- ▶ 당뇨병의 혈당치를 낮추어 낮는다.
- ▶ 갑상선 기능에 효과가 크다.

※ 먹기 좋게 손으로 직접(완, 액기스)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약값은 절을 짓는데 불사에 쓰여짐

※ 비구니 스님이 죽음의 고통에서 함초를 복용후 완치

함초구입 문의

054)638-4796

010-4591-4796 백련정사 백련스님

입금계좌: 농협 751025-51-024864 백련정사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딱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 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011-474-1345
입금계좌: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소중한 인연을 위한 정성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몸에 좋은 조청으로 심신을 새롭게 한다

전통 비법으로 산사에서 스님께서 직접 만드신... **산수조청**

- ▶ 산수조청은 공해시대, 무엇을 먹어야 안심할까 고민하는 당신에게 잠잠은 인연입니다.
- ▶ 산수조청은 산천 초목의 뿌리 잎, 줄기, 열매의 영양소를 고스란히 뽑아내어 우리전통의 조청으로 고아낸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입니다.
- ▶ 산수조청은 비구니 스님들의 청정심과 지극한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뜻이오르지않는 **산수참꽃 조청** 1.2kg

어혈, 냉증, 위장장애, 피로 독소, 적체의 해소, 신경조율, 향양, 원기회복등에 기여

산수약도라지조청 1.2kg

기관지, 천식, 기침, 거담, 배농작용, 폐기능, 호흡기질환, 피로회복등에 기여

죽민간장을 100% 천연으로 만들었습니다

산수조청 웰빙 자연당

- 각종 요리, 무침, 조림 등 반찬 만드실 때
- 떡, 빵, 과일 드실 때 ● 고추장, 김치 담그실 때

1100g×2병 = 18,000원

옛날 방법 그대로 만든 순수한 맛, 이제는 물엿 대신 산수조청 웰빙 자연당을 쓰십시오.

● 주문 및 문의: 대한불교조계종 금융사

054)372-3166

● 입 금 처: 농협 727077-52-056761(현순희)

맑은 마음 깊은 정성 **산수조청원**